

# FDI 개최 의의와 성과

글/편집국

## 대회 개최 배경과 의의

### 수년간의 노력 끝에 FDI 총회유치

세계치과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제85차 세계치과 의사연맹(FDI) 총회가 지난 9월 5~9일 동안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및 KOEX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전세계 1백14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FDI의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마치 '88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것이나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유치하는 것 만큼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매년 개최되는 대회이기에 전세계 회원국에게 개최회가 골고루 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FDI성격이 유럽세가 강하기 때문에 주로 유럽국가들이 개최권을 따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직 선진국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경쟁력상, 아시아라는 지역적 불이익상 대회유치가 용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92년 베를린 대회에서는 그동안 수년간의 노력의 결산으로 FDI총회를 서울에 유치시킬 수 있었고, 5년여의 준비 끝에 그 결실을 볼수 있었다. 이러한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한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최유치국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다양하고 꾸준한 홍보가 뒤따랐던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홍보 노력이었다. 역대 치협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실로 유치노력 수년만에 서울로 낙점됐던 것이다.

### 총회유치의 반감은 미시적 안목 불과해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상당히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 왔다. 국내 치과계 실정도 여의치 않은데 국제대회를 치른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고 배타적 질의들을 해 왔다. 이 같은 질문들은 집행부나 이 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반감이 심해져 갈수록 거세져 갔다. 이들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을 굳이 국내 현실과 비교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국내 치과계의 문제들이 이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므로써 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의식의 개방화, 치의학 선진화 필수

한 의료계단체가 이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우선 국내 치과계의 저력을 국내외에 적절히 알리는 기회가 되며 한국의 치과계가 머지 않아 세계무대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치의학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국내의 열악한 기자재산업을 부흥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실천 가능한 가정은 이대회를 치르고난 우리나라의 치과계가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노력해야 하는 자세가 전제 되는 일이긴 하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나라 치과계가 국내에서만 안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료개방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시점에서 국내 치과계가 살아나갈 길은 의식의 개방화, 치의학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이같은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국내 치과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이다.

세계 치과계는 변하고 있다. 발전적인 변화에 주도적일 때 국내 치과계는 도태되지 않고 앞서나갈 수 있다. 이번 국제대회는 그러

한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 FDI총회 개최 성과

### 선진화된 치의학 경험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제42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치과계에게는 선진화된 치의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록될 것이다.

전세계 1백14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FDI의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국내 치과의사들과 치과기자재 업계에게는 손쉽게 세계 치의학의 흐름을 접할 수 있었으며 중전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최신 치과기자재들을 한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로써 국내 치의학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며 치과기자재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자극제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치의학의 선진화와 기자재의 개발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치과계로서는 지속적인 과제인 것이다.

### 한국의 치의학과 문화 세계에 알려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과 외국 치과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는 선진국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한국 치의학의 수준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실적이자 대회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연회와 관광 프로그램등을 통해 5천년 역사의 한국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민간 외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사실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참가한 수많은 외국 치과의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국인의 자상한 배려와 친절을 못잊어 한다고 소감을 밝히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치과계의 문제점을 논의함으로써 국내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의 인식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짧은 시간내에 집중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치과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 홍보 전략 성공과 치과계 문제해결에 도움됨

특히 이번 대회가 외부에 더욱 알려진 것은 전세계적으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때에 전행사장을 금연화하여 금연총회로 알려면서였다. 각종 매스컴에서 이번 대회를 앓다 투어 보도한 것은 이같은 홍보전략과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간 것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치과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거나 입증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이미 거의 확정적인 정부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시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치과대학병원의 독립문제나 구강보건법 제정 등 국민의 구강건강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소개

FDI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설립됐다. 현재 전세계 1백14개국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59년에 가입했다. 치과의사 수로는 전세계 75만여명을 대표하는 국제기구이다. FDI는 현존하는 과학기술 단체 기구로는 가장 오래된 조직이며 세계보건기구(WHO)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현재 본부는 벨기에에 있으며 사무처는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다. 산하 지역기구로는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아세아태평양지역기구(APRO)와 유럽지역기구(ERO), 북아메리카지역기구(NARO), 라틴아메리카지역기구(LARO), 아프리카지역기구(ARO) 등 5개 기구가 있다.

FDI에서는 상임위원회의와 총회를 통해 세계치의학의 흐름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치과분야의 권위와 전문성, 독립성을 대변하며 모든 인류가 최상의 구강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회원국과 각 회원국의 회원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의 연구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두차례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한명도 없다. 임원으로는 현재 윤홍렬 상임이사가 전부이며 지난해까지는 지헌택 치협 고문이 아태연맹 파견 상임이사로 활약해 왔었다. 올해 서울 총회에서 윤홍렬 이사가 차기회장에 도전했으나 아깝게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